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AUGUST
2025 08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로마서/여호수아]



기드온의 3백 용사 같은 교회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서는 겨우 3만 2천 병력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다 돌려보내고 3백 명만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병력만 가지고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궈 내십니다.

보통 우리는 함께 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더 못 견뎌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3백 명을 3천 명, 3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자씨 모임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3만 명을 오히려 3백 명을 추리기 위한 시작점으로 사

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규모일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머릿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큰 규모는 오히려 잘못된 교만의 원인이 됩니다. 돈이 많고, 재주 있는 사람들 많다고 반드시 영적으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뽀빠이를 통해 덧셈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실은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예화된 소수는 대부대가 못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구약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일컬어 “남은 자 (Remnant)”라는 표현을 썼고, 신약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의 3백 용사는 “끝까지 남은 자”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남은 자”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소수들. 세상이 핍박하고, 마귀의 온갖 유혹과 시험이 몰아쳐도 믿음으로 견뎌낸 성도들. 주님께서 교회 안에 알곡과 컄물이 섞여 있다고 하시고, 이들이 계속해서 키질을 당하며 알곡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3만이 넘는 엄청난 적군을 상대로 고작 3백 명의 군대가 나가 싸운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적은 완전히 중무장한 군대인데, 이쪽은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세상의 힘에 맞서 나가는 교회와도 같은, 겉으로만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든 양식과 나팔은 교회의 손에 쥐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고 저 바벨론처럼 강대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교회는 정예화 되어야 합니다. 정예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백 용사를 추리면서 주셨던 두 가지 기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견 인간적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한테 3년 제자훈련 받은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담대한 복음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복음서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둘째,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뽑힌 기드온의 3백 용사들은 물을 마시면서도 사방을 살피며 적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당장 편하고 좋은 것, 돈 되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살면, 물 마실 때 아예 물속에 얼굴 처박고 마구 마시다가 탈락한 사람들같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제자들. 이렇게 정예화된 기드온의 3백 용사 같은 교회는 한 사람이 천 명을 쫓는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로마서 / 여호수아]



2025.
08

SAEROUN

QT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7	28	29	30
3	4	5	6
10	11	12	13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단기선교 10-15			
17	18	19	20
24	25	26	27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1	1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1-3, S하우스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1-3, 너리글 수련원(안성) 제주 단기선교 7/31-8/2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1-3, 가평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2
7	8 KIDS 여름성경학교 8-9, 영아부실 고등부 여름수련회 8-10, 청포대 쉼넷(태안) Jr. 청년부 여름수련회 8-10, 가평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9
14	15 광복절 JUNIOR 여름성경학교 15-17, 포레스트펜션(양평)	16
21	22	23
28	29	30 남성사역 러브미니스트리

7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5.
08

1	금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4-21
2	토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	롬 13:1-7
3	주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겔 37:1-10
4	월	회복의 영을 부어주소서	골 2:23-29
5	화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롬 13:8-10
6	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롬 13:11-14
7	목	서로 정죄하지 말라	롬 14:1-12
8	금	하나님의 나라	롬 14:13-17
9	토	믿음을 따라 행하라	롬 14:18-23
10	주일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출 3:1-12 & 34:29-35
11	월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는 주님	요 21:15-19
12	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롬 15:1-6
13	수	서로 용납하라	롬 15:7-13
14	목	복음의 제사장	롬 15:14-21
15	금	[광복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사 9:1-7
16	토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롬 15:22-29
17	주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삿 8:22-35
18	월	하나님이 통치하시리라	시 146:3-10
19	화	기도로 동역하는 성도	롬 15:30-33
20	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자들을 위하여	롬 16:1-5
21	목	주 안에서 문안하라	롬 16:6-16
22	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롬 16:17-20
23	토	하나님께 영광을	롬 16:21-27
24	주일	요담의 경고	삿 9:1-21
25	월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가	사 5:1-7
26	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수 1:1-9
27	수	지도자와 백성의 신뢰, 순종으로 응답하다	수 1:10-18
28	목	라합의 믿음	수 2:1-11
29	금	붉은 줄, 구원의 증표	수 2:12-24
30	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할 일	수 3:1-8
31	주일	아비멜렉의 최후	삿 9:22-57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훈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01

금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4-21

-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Bless those who persecute you; bless and do not curse.

- 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Do not be proud, but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people of low position. Do not be conceited.

-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Be careful 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everyone.

-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If it is possible, as far as it depends on you, live at peace with everyone.

-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Do not take revenge, my dear friends, but leave room for God's wrath, for it is written: "It is mine to avenge; I will repay," says the Lord.

-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On the contrary: "If your enemy is hungry, feed him; if he is thirsty, give him something to drink. In doing this, you will heap burning coals on his head."

-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2

토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

롬 13:1-7

-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Let everyone be subject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for there is no authority except that which God has established. The authorities that exist have been established by God.

-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Consequently, whoever rebels against the authority is rebelling against what God has instituted, and those who do so will bring judgment on themselves.

- 3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For rulers hold no terror for those who do right, but for those who do wrong. Do you want to be free from fear of the one in authority? Then do what is right and you will be commended.

- 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For the one in authority is God's servant for your good. But if you do wrong, be afraid, for rulers do not bear the sword for no reason. They are God's servants, agents of wrath to bring punishment on the wrongdoer.

- 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bmit to the authorities, not only because of possible punishment but also as a matter of conscience.

- 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This is also why you pay taxes, for the authorities are God's servants, who give their full time to governing.

-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Give to everyone what you owe them: If you owe taxes, pay taxes; if revenue, then revenue; if respect, then respect; if honor, then hono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3

주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겔 37:1-10

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04

월

회복의 영을
부어주소서

을 2:23-29

- 2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Be glad, people of Zion, rejoice in the LORD your God, for he has given you the autumn rains because he is faithful. He sends you abundant showers, both autumn and spring rains, as before.

- 24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The threshing floors will be filled with grain; the vats will overflow with new wine and oil.

- 25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종이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I will repay you for the years the locusts have eaten— the great locust and the young locust, the other locusts and the locust swarm— my great army that I sent among you.

- 26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You will have plenty to eat, until you are full, and you will prai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who has worked wonders for you; never again will my people be shamed.

- 27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in Israel, that I am the LORD your God, and that there is no other; never again will my people be shamed.

- 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And afterward,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Even on my servants, both men and women,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05

화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롬 13:8-10

- 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except the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for whoever loves others has fulfilled the law.

-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The commandments,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covet," and whatever other command there may be, are summed up in this one comm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Love does no harm to a neighbor.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6

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롬 13:11-14

-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And do this,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The hour has already come for you to wake up from your slumber, because our salvation is nearer now than when we first believed.

-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The night is nearly over; the day is almost here. So let us put aside the deeds of darkness and put on the armor of light.

-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Let us behave decently, as in the daytime, not in carousing and drunkenness, not in sexual immorality and debauchery, not in dissension and jealousy.

-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Rather, clothe yourselves with the Lord Jesus Christ, and do not think about how to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7

목

서로
정죄하지 말라

롬 14:1-12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4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 으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 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यो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8

금

하나님의 나라

롬 14:13-17

- 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Therefore let us stop passing judgment on one another. Instead, make up your mind not to put any stumbling block or obstacle in the way of a brother or sister.

- 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I am convinced, being fully persuaded in the Lord Jesus, that nothing is unclean in itself. But if anyone regards something as unclean, then for that person it is unclean.

- 15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If your brother or sister is distressed because of what you eat, you are no longer acting in love. Do not by your eating destroy someone for whom Christ died.

- 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Therefore do not let what you know is good be spoken of as evil.

-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9

토

믿음을 따라
행하라

롬 14:18-23

- 18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because anyone who serves Christ in this way is pleasing to God and receives human approval.

- 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Let us therefore make every effort to do what leads to peace and to mutual edification.

- 20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Do not destroy the work of God for the sake of food. All food is clean, but it is wrong for a person to eat anything that causes someone else to stumble.

- 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It is better not to eat meat or drink wine or to do anything else that will cause your brother or sister to fall.

- 22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So whatever you believe about these things keep between yourself and God.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condemn himself by what he approves.

- 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But whoever has doubts is condemned if they eat, because their eating is not from faith; and everything that does not come from faith is si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0

주일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출 3:1-12 & 34:29-35

- 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 2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 3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 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 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 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 9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 34:29-35]

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
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
하였더라

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
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1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
니

32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
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
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33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4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
게 전하며

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
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11

월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는 주님

요 21:15-19

-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Yes, Lord," he sai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lambs."

- 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Again Jesus said,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He answered,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ake care of my sheep."

-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The third time he said to him,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He said,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sheep."

-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Very truly I tell you, when you were younger you dressed yourself and went where you wanted; but when you are old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and someone else will dress you and lead you where you do not want to go."

-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Jesus said this to indicate the kind of death by which Peter would glorify God. Then he said to him, "Follow me!"

12

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롬 15:1-6

- 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We who are strong ought to bear with the failings of the weak and not to please ourselves.

- 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Each of us should please our neighbors for their good, to build them up.

- 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For even Christ did not please himself but, as it is written: "The insults of those who insult you have fallen on me."

-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For everything that was written in the past was written to teach us, so that through the endurance taught in the Scriptures and the encouragement they provide we might have hope.

- 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May the God who gives endurance and encouragement give you the same attitude of mind toward each other that Christ Jesus had,

- 6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so that with one mind and one voice you may glorify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3

수

서로
용납하라

롬 15:7-13

-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Accept one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in order to bring praise to God.

- 8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For I tell you that Christ has become a servant of the Jews on behalf of God's truth, so that the promises made to the patriarchs might be confirmed

- 9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and, moreover, that the Gentiles might glorify God for his mercy. As it is written: "Therefore I will praise you among the Gentiles; I will sing the praises of your name."

- 10 또 이르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Again, it says, "Rejoice, you Gentiles, with his people."

- 11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And again, "Praise the Lord, all you Gentiles; let all the peoples extol him."

- 12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And again, Isaiah says, "The Root of Jesse will spring up, one who will arise to rule over the nations; in him the Gentiles will hope."

- 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4

목

복음의
제사장

롬 15:14-21

- 1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I myself am convinced, my brothers and sisters, that you yourselves are full of goodness, filled with knowledge and competent to instruct one another.

- 15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Yet I have written you quite boldly on some points to remind you of them again, because of the grace God gave me

- 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to be a minister of Christ Jesus to the Gentiles. He gave me the priestly duty of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so that the Gentiles might become an offering acceptable to God,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 17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Therefore I glory in Christ Jesus in my service to God.

- 18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I will not venture to speak of anything except what Christ has accomplished through me in leading the Gentiles to obey God by what I have said and done—

- 19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by the power of signs and wonders,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of God. So from Jerusalem all the way around to Illyricum, I have fully proclaimed the gospel of Christ.

- 20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It has always been my ambition to preach the gospel where Christ was not known, so that I would not be building on someone else's foundation.

- 21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Rather, as it is written: "Those who were not told about him will see, and those who have not heard will understan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5

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사 9:1-7

-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
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
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
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
게 하셨느니라

Nevertheless, there will be no more gloom for those
who were in distress. In the past he humbled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but in the
future he will honor Galilee of the nations, by the
Way of the Sea, beyond the Jordan—

-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The people walking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on those living in the land of deep darkness a
light has dawned.

-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
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You have enlarged the nation and increased their
joy; they rejoice before you as people rejoice at
the harvest, as warriors rejoice when dividing the
plunder.

-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
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
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For as in the day of Midian's defeat, you have
shattered the yoke that burdens them, the bar across
their shoulders, the rod of their oppressor.

-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겹
옷이 불에 쏘 같이 살라지리니

Every warrior's boot used in battle and every
garment rolled in blood will be destined for burning,
will be fuel for the fire.

-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
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
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
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Of the greatness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will be no end. He will reign on David's throne and
over his kingdom, establishing and upholding it
with justice and righteousness from that time on
and forever.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this.

16

토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롬 15:22-29

- 22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This is why I have often been hindered from coming to you.

- 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But now that there is no more place for me to work in these regions, and since I have been longing for many years to visit you,

- 24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므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I plan to do so when I go to Spain. I hope to see you while passing through and to have you assist me on my journey there, after I have enjoyed your company for a while.

- 25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Now, however, I am on my way to Jerusalem in the service of the Lord's people there.

- 26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For Macedonia and Achaia were pleased to make a contribution for the poor among the Lord's people in Jerusalem.

- 27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They were pleased to do it, and indeed they owe it to them. For if the Gentiles have shared in the Jews' spiritual blessings, they owe it to the Jews to share with them their material blessings.

- 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So after I have completed this task and have made sure that they have received this contribution, I will go to Spain and visit you on the way.

- 29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총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I know that when I come to you, I will come in the full measure of the blessing of Chris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7

주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삿 8:22-35

- 22 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The Israelites said to Gideon, “Rule over us—you, your son and your grandson—because you have saved us from the hand of Midian.”

- 23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But Gideon told them, “I will not rule over you, nor will my son rule over you. The LORD will rule over you.”

- 24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And he said, “I do have one request, that each of you give me an earring from your share of the plunder.” (It was the custom of the Ishmaelites to wear gold earrings.)

- 25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겹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They answered, “We’ll be glad to give them.” So they spread out a garment, and each of them threw a ring from his plunder onto it.

- 26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천 칠백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러던 사슬이 있었더라

The weight of the gold rings he asked for came to seventeen hundred shekels, not counting the ornaments, the pendants and the purple garments worn by the kings of Midian or the chains that were on their camels’ necks.

- 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Gideon made the gold into an ephod, which he placed in Ophrah, his town. All Israel prostituted themselves by worshiping it there, and it became a snare to Gideon and his family.

- 28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사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Thus Midian was subdued before the Israelites and did not raise its head again. During Gideon’s lifetime, the land had peace forty years.

- 29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Jerub-Baal son of Joash went back home to live.

- 30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 명이었고

He had seventy sons of his own, for he had many
wives.

- 31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His concubine, who lived in Shechem, also bore him
a son, whom he named Abimelek.

- 32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으매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
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Gideon son of Joash died at a good old age and was
buried in the tomb of his father Joash in Ophrah of
the Abiezrites.

- 33 기드온이 이미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
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
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No sooner had Gideon died than the Israelites again
prostituted themselves to the Baals. They set up
Baal-Berith as their god

- 34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
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
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and did not remember the LORD their God, who had
rescued them from the hands of all their enemies on
every side.

- 35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도 아니하였더라

They also failed to show any loyalty to the family of
Jerub-Baal (that is, Gideon) in spite of all the good
things he had done for them.

18

월

하나님이
통치하시리라

시 146:3-10

- 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
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Do not put your trust in princes, in human beings,
who cannot save.

- 4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When their spirit departs, they return to the ground;
on that very day their plans come to nothing.

-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
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Blessed are those whose help is the God of Jacob,
whose hope is in the LORD their God.

- 6 여호와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
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He is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everything in them — he remains faithful forever.

- 7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
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
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He upholds the cause of the oppressed and gives
food to the hungry. The LORD sets prisoners free,

- 8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
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
인들을 사랑하시며

the LORD gives sight to the blind, the LORD lifts up
those who are bowed down, the LORD loves the
righteous.

- 9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The LORD watches over the foreigner and sustains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but he frustrates the
ways of the wicked.

- 10 시온아 여호와와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
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The LORD reigns forever, your God, O Zion, for all
generations. Praise the LORD.

19

화

기도로
동역하는 성도

롬 15:30-33

- 3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by our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love of the Spirit, to join me in my struggle by praying to God for me.

- 31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Pray that I may be kept safe from the unbelievers in Judea and that the contribution I take to Jerusalem may be favorably received by the Lord's people there,

- 32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so that I may come to you with joy, by God's will, and in your company be refreshed.

- 33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The God of peace be with you all. Ame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자들을 위하여

롬 16:1-5

- 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뵤뵤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I commend to you our sister Phoebe, a deacon of the
church in Cenchreae.

- 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
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I ask you to receive her in the Lord in a way worthy
of his people and to give her any help she may need
from you, for she has been the benefactor of many
people, including me.

- 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Greet Priscilla and Aquila, my co-workers in Christ
Jesus.

- 4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They risked their lives for me. Not only I but all the
churches of the Gentiles are grateful to them.

- 5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
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Greet also the church that meets at their house.
Greet my dear friend Epenetus, who was the first
convert to Christ in the province of Asia.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주 안에서
문안하라

롬 16:6-16

- 6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Greet Mary, who worked very hard for you.

- 7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Greet Andronicus and Junia, my fellow Jews who have been in prison with me. They are outstanding among the apostles, and they were in Christ before I was.

- 8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Greet Ampliatus, my dear friend in the Lord.

-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Greet Urbanus, our co-worker in Christ, and my dear friend Stachys.

-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Greet Apelles, whose fidelity to Christ has stood the test. Greet those who belong to the household of Aristobulus.

- 11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깃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Greet Herodion, my fellow Jew. Greet those in the household of Narcissus who are in the Lord.

- 12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Greet Tryphena and Tryphosa, those women who work hard in the Lord. Greet my dear friend Persis, another woman who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ord.

- 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Greet Rufus, chosen in the Lord, and his mother, who has been a mother to me, too.

- 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Greet Asyncritus, Phlegon, Hermes, Patrobas, Hermas and the other brothers and sisters with them.

- 15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림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Greet Philologus, Julia, Nereus and his sister, and Olympas and all the Lord's people who are with them.

- 16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Greet one another with a holy kiss. All the churches of Christ send greeting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2

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롬 16:17-20

- 17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to watch out for those who cause divisions and put obstacles in your way that are contrary to the teaching you have learned. Keep away from them.

- 18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For such people are not serving our Lord Christ, but their own appetites. By smooth talk and flattery they deceive the minds of naive people.

- 19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Everyone has heard about your obedience, so I rejoice because of you; but I want you to be wise about what is good, and innocent about what is evil.

- 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under your feet. The grace of our Lord Jesus be with you.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3

토

하나님께
영광을

롬 16:21-27

- 21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Timothy, my co-worker, sends his greetings to you,
as do Lucius, Jason and Sosipater, my fellow Jews.

- 22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I, Tertius, who wrote down this letter, greet you in
the Lord.

- 23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
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Gaius, whose hospitality I and the whole church
here enjoy, sends you his greetings. Erastus, who is
the city's director of public works, and our brother
Quartus send you their greetings.

- 24 (없음)
(Empty)

-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Now to him who is able to establish you in
accordance with my gospel, the message I proclaim
about Jesus Christ, in keeping with the revelation of
the mystery hidden for long ages past,

-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
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but now revealed and made known through the
prophetic writings by the command of the eternal
God, so that all the Gentiles might come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 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
멘

to the only wise God be glory forever through Jesus
Christ! Amen.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4

주일

요담의
경고

삿 9:1-21

- 1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Abimelek son of Jerub-Baal went to his mother's brothers in Shechem and said to them and to all his mother's clan,

- 2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Ask all the citizens of Shechem, 'Which is better for you: to have all seventy of Jerub-Baal's sons rule over you, or just one man?' Remember, I am your flesh and blood."

- 3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When the brothers repeated all this to the citizens of Shechem, they were inclined to follow Abimelek, for they said, "He is related to us."

- 4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칠십 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They gave him seventy shekels of silver from the temple of Baal-Berith, and Abimelek used it to hire reckless scoundrels, who became his followers.

- 5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칠십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He went to his father's home in Ophrah and on one stone murdered his seventy brothers, the sons of Jerub-Baal. But Jotham, the youngest son of Jerub-Baal, escaped by hiding.

- 6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Then all the citizens of Shechem and Beth Millo gathered beside the great tree at the pillar in Shechem to crown Abimelek king.

- 7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When Jotham was told about this, he climbed up on the top of Mount Gerizim and shouted to them, "Listen to me, citizens of Shechem, so that God may listen to you."

- 8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One day the trees went out to anoint a king for themselves. They said to the olive tree, 'Be our king.'

- 9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But the olive tree answered, ‘Should I give up my oil, by which both gods and humans are honored, to hold sway over the trees?’

- 10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Next, the trees said to the fig tree, ‘Come and be our king.’

- 11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But the fig tree replied, ‘Should I give up my fruit, so good and sweet, to hold sway over the trees?’

- 12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Then the trees said to the vine, ‘Come and be our king.’

- 13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But the vine answered, ‘Should I give up my wine, which cheers both gods and humans, to hold sway over the trees?’

- 14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Finally all the trees said to the thornbush, ‘Come and be our king.’

- 15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The thornbush said to the trees, ‘If you really want to anoint me king over you, come and take refuge in my shade; but if not, then let fire come out of the thornbush and consume the cedars of Lebanon!’

- 16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나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나

“Have you acted honorably and in good faith by making Abimelek king? Have you been fair to Jerub-Baal and his family? Have you treated him as he deserves?

- 17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Remember that my father fought for you and risked his life to rescue you from the hand of Midian.

- 18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칠십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But today you have revolted against my father's family. You have murdered his seventy sons on a single stone and have made Abimelek, the son of his female slave, king over the citizens of Shechem because he is related to you.

- 19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So have you acted honorably and in good faith toward Jerub-Baal and his family today? If you have, may Abimelek be your joy, and may you be his, too!

- 20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But if you have not, let fire come out from Abimelek and consume you, the citizens of Shechem and Beth Millo, and let fire come out from you, the citizens of Shechem and Beth Millo, and consume Abimelek!"

- 21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Then Jotham fled, escaping to Beer, and he lived there because he was afraid of his brother Abimelek.

25

월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사 5:1-7

- 1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
히 기름진 산에로다

I will sing for the one I love a song about his vineyard:
My loved one had a vineyard on a fertile hillside.

- 2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짚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He dug it up and cleared it of stones and planted it
with the choicest vines. He built a watchtower in it
and cut out a winepress as well. Then he looked for a
crop of good grapes, but it yielded only bad fruit.

- 3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
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
라

"Now you dwellers in Jerusalem and people of
Judah, judge between me and my vineyard.

- 4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
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What more could have been done for my vineyard
than I have done for it? When I looked for good
grapes, why did it yield only bad?

- 5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
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
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यो

Now I will tell you what I am going to do to my
vineyard: I will take away its hedge, and it will be
destroyed; I will break down its wall, and it will be
trampled.

- 6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돌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I will make it a wasteland, neither pruned nor
cultivated, and briars and thorns will grow there. I
will command the clouds not to rain on it."

- 7 무릇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
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
박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The vineyard of the LORD Almighty is the nation
of Israel, and the people of Judah are the vines he
delighted in. And he looked for justice, but saw
bloodshed; for righteousness, but heard cries of
distress.

26

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수 1:1-9

- 1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the LORD said to Joshua son of Nun, Moses' aide:

-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Moses my servant is dead. Now then, you and all these people, get ready to cross the Jordan River into the land I am about to give to them—to the Israelites.

-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as I promised Moses.

- 4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Your territory will extend from the desert to Lebanon, and from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all the Hittite country—to the Mediterranean Sea in the west.

- 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No one will be able to stand against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As I was with Moses, so I will be with you;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Be strong and courageous, because you will lead these people to inherit the land I swore to their ancestors to give them.

-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at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 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7

수

지도자와 백성의 신뢰,
순종으로 응답하다

수 1:10-18

- 10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So Joshua ordered the officers of the people:

- 11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Go through the camp and tell the people, 'Get your provisions ready. Three days from now you will cross the Jordan here to go in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for your own.'"

- 12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But to the Reubenites, the Gadites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Joshua said,

- 13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Remember the command that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gave you after he said, 'The LORD your God will give you rest by giving you this land.'"

- 14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Your wives, your children and your livestock may stay in the land that Moses gave you east of the Jordan, but all your fighting men, ready for battle, must cross over ahead of your fellow Israelites. You are to help them

- 15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until the LORD gives them rest, as he has done for you, and until they too have taken possession of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them. After that, you may go back and occupy your own land, which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gave you east of the Jordan toward the sunrise."

- 16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Then they answered Joshua, "Whatever you have commanded us we will do, and wherever you send us we will go."

- 17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Just as we fully obeyed Moses, so we will obey you. Only may the LORD your God be with you as he was with Moses.

- 18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Whoever rebels against your word and does not obey it, whatever you may command them, will be put to death. Only be strong and courageou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라합의
믿음

수 2:1-11

- 1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 2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 3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 4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 5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 6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여 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 7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 8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 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붉은 줄,
구원의 증표

수 2:12-24

12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5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16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17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19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21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2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23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0

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할 일

수 3:1-8

- 1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싯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Early in the morning Joshua and all the Israelites set out from Shittim and went to the Jordan, where they camped before crossing over.

- 2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 After three days the officers went throughout the camp,

- 3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giving orders to the people: "When you se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your God, and the Levitical priests carrying it, you are to move out from your positions and follow it.

- 4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Then you will know which way to go, since you have never been this way before. But keep a distance of about two thousand cubits between you and the ark; do not go near it."

- 5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Joshua told the people, "Consecrate yourselves, for tomorrow the LORD will do amazing things among you."

- 6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Joshua said to the priests, "Take up the ark of the covenant and pass on ahead of the people." So they took it up and went ahead of them.

- 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And the LORD said to Joshua, "Today I will begin to exalt you in the eyes of all Israel, so they may know that I am with you as I was with Moses.

- 8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Tell the priests who carry the ark of the covenant: 'When you reach the edge of the Jordan's waters, go and stand in the rive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1

주일

아비멜렉의
최후

삿 9:22-57

- 22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삼 년에

After Abimelek had governed Israel three years,

- 23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
- 악한 영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
- 을 배반하였으니

God stirred up animosity between Abimelek and the
citizens of Shechem so that they acted treacherously
against Abimelek.

- 24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명에게 저지른
-
-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
-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
-
- 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
-
- 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God did this in order that the crime against Jerub-
Baal's seventy sons, the shedding of their blood,
might be avenged on their brother Abimelek and
on the citizens of Shechem, who had helped him
murder his brothers.

- 25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
-
- 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
-
- 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
-
- 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In opposition to him these citizens of Shechem set
men on the hilltops to ambush and rob everyone
who passed by, and this was reported to Abimelek.

- 26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
-
- 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Now Gaal son of Ebed moved with his clan into
Shechem, and its citizens put their confidence in
him.

- 27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
-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
-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After they had gone out into the fields and gathered
the grapes and trodden them, they held a festival in
the temple of their god. While 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they cursed Abimelek.

- 28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
-
- 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
-
- 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
-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
-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
-
- 비멜렉을 섬기리요

Then Gaal son of Ebed said, "Who is Abimelek, and
why should we Shechemites be subject to him?
Isn't he Jerub-Baal's son, and isn't Zebul his deputy?
Serve the family of Hamor, Shechem's father! Why
should we serve Abimelek?"

- 29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
-
- 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
-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If only this people were under my command! Then
I would get rid of him. I would say to Abimelek, 'Call
out your whole army!'"

- 30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
- 말을 듣고 노하여

When Zebul the governor of the city heard what
Gaal son of Ebed said, he was very angry.

- 31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Under cover he sent messengers to Abimelek, saying, "Gaal son of Ebed and his clan have come to Shechem and are stirring up the city against you."

- 32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Now then, during the night you and your men should come and lie in wait in the fields.

- 33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In the morning at sunrise, advance against the city. When Gaal and his men come out against you, seize the opportunity to attack them."

- 34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So Abimelek and all his troops set out by night and took up concealed positions near Shechem in four companies.

- 35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Now Gaal son of Ebed had gone out and was standing at the entrance of the city gate just as Abimelek and his troops came out from their hiding place.

- 36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When Gaal saw them, he said to Zebul, "Look, people are coming down from the tops of the mountains!" Zebul replied, "You mistake the shadows of the mountains for men."

- 37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 떼는 므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But Gaal spoke up again: "Look, people are coming down from the central hill, and a company is coming from the direction of the diviners' tree."

- 38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Then Zebul said to him, "Where is your big talk now, you who said, 'Who is Abimelek that we should be subject to him?' Aren't these the men you ridiculed? Go out and fight them!"

- 39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So Gaal led out the citizens of Shechem and fought Abimelek.

- 40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Abimelek chased him all the way to the entrance of the gate, and many were killed as they fled.

- 41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Then Abimelek stayed in Arumah, and Zebul drove Gaal and his clan out of Shechem.

- 42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The next day the people of Shechem went out to the fields, and this was reported to Abimelek.

- 43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So he took his men, divided them into three companies and set an ambush in the fields. When he saw the people coming out of the city, he rose to attack them.

- 44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Abimelek and the companies with him rushed forward to a position at the entrance of the city gate. Then two companies attacked those in the fields and struck them down.

- 45 아비멜렉이 그 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All that day Abimelek pressed his attack against the city until he had captured it and killed its people. Then he destroyed the city and scattered salt over it.

- 46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On hearing this, the citizens in the tower of Shechem went into the stronghold of the temple of El-Berith.

- 47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When Abimelek heard that they had assembled there,

- 48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he and all his men went up Mount Zalmon. He took an ax and cut off some branches, which he lifted to his shoulders. He ordered the men with him, "Quick! Do what you have seen me do!"

- 49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엷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겔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 명이었더라

So all the men cut branches and followed Abimelek. They piled them against the stronghold and set it on fire with the people still inside. So all the people in the tower of Shechem, about a thousand men and women, also died.

- 50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Next Abimelek went to Thebez and besieged it and captured it.

- 51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Inside the city, however, was a strong tower, to which all the men and women—all the people of the city—had fled. They had locked themselves in and climbed up on the tower roof.

- 52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Abimelek went to the tower and attacked it. But as he approached the entrance to the tower to set it on fire,

- 53 한 여인이 맷돌 위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a woman dropped an upper millstone on his head and cracked his skull.

- 54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Hurriedly he called to his armor-bearer, “Draw your sword and kill me, so that they can’t say, ‘A woman killed him.’” So his servant ran him through, and he died.

- 55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When the Israelites saw that Abimelek was dead, they went home.

- 56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칠십 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Thus God repaid the wickedness that Abimelek had done to his father by murdering his seventy brothers.

- 57 또 세겔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God also made the people of Shechem pay for all their wickedness. The curse of Jotham son of Jerub-Baal came on them.



 개인기도제목 - 1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2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3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4주차

[illegible]

2025.
08

CES 멘티 수료식 간증

01

1. 박주흥 성도 (W서초공동체)
2. 위성빈 집사 (W서초공동체)
3. 김근욱 성도 (S강남공동체)
4. 이성호 성도 (S강남공동체)
5. 배지현 성도 (W서초공동체)
6. 한은주A 성도 (우면공동체)
7. 김준혁 성도 (N강남공동체)
8. 진병욱 성도 (W서초공동체)

반 발자국이 한 발자국되기를

박주흥 성도 (W서초공동체)



저는 사업상 매년 초에는 매우 바쁜 시기를 지냅니다. 그러나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주차봉사를 하면서 1년에 첫 40일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러기에 다른 봉사나 양육에 대한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상시 알고 지내던 아내의 순장님 부부의 갑작스러운 권유를 받고 처음엔 많은 고민과 부담이 되었으나 CES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서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다. 멘토님은 주말과 주일에 여러 가지 사역으로 바쁘셨고, 저는 주중에는 사업상 여러 약속이 있어 일정이 불규칙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멘토님께서 아무 때나 상관없다고 하셨기에 저는 '월요일 새벽 6시 반'이라는 시간을 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멘토님은 주중에 새벽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새벽시간도 월요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2주간 멘토님은 저희 집 근처로 오셨고, 집 앞에 있는 무인 카페에서 우리는 첫 손님이 되어 매주 월요일 새벽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시는 멘토님에게 새벽예배가 없는 월요일은 유일하게 편안한 아침일 텐데, 저를 위하여 그 시간을 배려해 주신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달걀을, 어떤 날은 고구마를 간식으로 감사함을 나누

며. 낯설지만 따뜻한 시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다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사모함을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쉽게 들리기 시작한 것은 저에게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CES는 저에게 낯설지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한 가지 저에게 유난히 마음에 새겨진 질문이 있었는데, 3과 믿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가 노년임에도 순종하였는데, 과연 저라면 그리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스스럼없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저에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체화된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고 지금의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머뭇거리던 저를 은혜의 출발점에서 반 발자국 앞으로 내밀게 해 주신 멘토님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반 발자국이 한 발자국 되어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매일 말씀묵상과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멘티님이 가정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위성빈 집사 (W서초공동체)



멘티님과 만남은 좀 특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평일 저녁 저희 집에서 순예배를 드리는 관례로 저는 그 시간 동안 집 밖에 있어야 했고, 멘티님도 아내

분을 모시러 마치는 시간에 맞춰 집 주차장에 대기하던 중 1~2주에 한 번씩 주차장에서 만나 인사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멘티님은 2016년에 등록하여 교회 내 훈련이나 순예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멀리 화곡동에서 교회까지 수년간 주차 봉사를 하며 40일 특새를 개근할 정도로 열심이 있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남다른 분이셨습니다. 이런 멘티님이 훈련을 통해 충성된 제자로 세워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CES 멘티과정에 대해 제안을 했지만 처음엔 거절당했습니다.

2025년 특새 중 어느 토요일, 교회 주차장에서 멘티님과 마주치게 되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또 CES를 제안하였는데 때마침 다음날 주일에 CES멘티 모집 광고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아내와 멘티님의 아내와 함께 합심하여 이젠 멘티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며 반협박으로 다시 제안을 했고 다행히 순종하여 CES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멘티님 시간에 무조건 맞춰

수 있다고 이야기드렸더니 월요일 아침 6시 30분을 이야기하셔서 순간 당황은 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흔쾌히 약속을 하고 매주 월요일 멘티님 집 아파트 상가에 있는 그다지 크지 않은 6평 정도 되는 무인카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매 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을 시작하였습니다. 매 과마다 말씀을 기록하고 연습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역시 멘티님은 성실하게 연습을 잘해 오셔서 더 은혜가 되었고 특히 매 과마다 진행되는 질문에 대답은 무뎠지만, 진실되게 꾸밈없이 반응하는 천진함 속에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정한 믿음은 갈등 속에서도 몸을 움직여 순종하는 것이라고 나누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언제나,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고백을 통해 멘토인 제가 큰 도전을 받았던 순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생애 첫 훈련(?)을 마친 멘티님이 하나님이 주신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이번 훈련을 통해 장착한 순종으로 예배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말씀 묵상과 기도가 삶 가운데 잘 정착되어 가정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 주변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긴 무기력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김근욱 성도 (S강남공동체)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가 예상치 못하게 ‘뮤찬’에 합격했습니다. 노래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목가까지 걸린 상태였는데, 교회 가는 길에 갑자기 득음(?)을 하더니 연습곡을 거뜬히 소화해 냈습니다. 결과는 합격. 연습 시간은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평소 같으면 예배 후 곧장 귀가하던 저에게 갑자기 생긴 ‘3시간의 공백’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침 CES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거다! 이걸로 기다리는 시간을 채우면 되겠네.” 아내에게 같이 하자고 했더니, 평소 CES에 관심 많았던 그녀는 이번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방구석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CES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말에 결국 아내도 “그래요”라고 답했고, 우리 부부는 함께 CES 멘티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링이 시작되면서 한 부부 멘토님께 배정되었는데, 그분들의 삶에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정, 충성은 말 그대로 ‘우리 부부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멘토님의 직장에서의 간증도 인상 깊었습니다. 식사 시간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한 동료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는 이야기. 그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살아 있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아, 나도 멘토님처럼 살고 싶다. 저게 진짜 멋진 신앙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과제 중 하나였던 성경 암송은 제게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하철 이동 중이거나 짧은 업무 틈 사이에 말씀 카드를 들여다보며 외우는 그 시간이, 처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씹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성경 한 구절을 외운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ですよ. 기초 없이 듣는 설교는 그냥 수면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CES는 늦기 전에, 아니 되도록 빨리 꼭 들어야 할 훈련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멘토님께서 “나중엔 멘토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요?”라고 되물었더니, “왜요? 멘티님이 어때서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살짝 용기가 생겼습니다. 구체적인 멘토 훈련과정까지 소개해주시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사실 중간에 제가 독감에 걸려 수업을 미루기도 했지만,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정은 쉽지 않지만, 그 시간 속에 머무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ですよ.

또 다른 씨앗을 뿌릴 희망

이성호 성도 (S강남공동체)



누구나 처음으로 멘토링을 시작할 때 느끼는 감정은 과연 내가 잘해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지식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만남부터 멘티님은 모태신앙에, 쉽지 않은 포스를 내뿜고 계셨기에 ‘아... 나는 또 광야에 들어섰구나...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에너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한 과 한 과가 거듭될수록 이미 하나님은 멘티님의 마음밭을 갈아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단했었을 갑옷은 모두 벗겨 놓으셨습니다.

저의 의도하지 않은 말과 우리의 대화 속에서 축복의 씨앗을 심겨 놓으시고 매 멘토링 시간마다 그 축복의 열매를 확인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보잘것없는 성실을 주님의 최선의 것으로 변화시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저와 멘티님은 또 다른 주님의 씨앗을 뿌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계획된 우연으로 두 부부가 각각 멘토와 멘티로 만나 더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멘티님에게 다가올 CES 멘토링 교육의 장에서 더더욱 착해진(?) 얼굴로 웃음 짓는 김근욱 멘티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영광을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은 점점 평안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배지현 성도 (W서초공동체)



나이가 드니 삶에 회의가 느껴지면서 모든 것에 화가 났습니다. 배우자도, 진행 중인 사춘기 딸도, 이제 사춘기를 시작하는 아들도 다 버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에서 저는 그저 싸움닭 같았고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예배 때 CES 신청기간인걸 알았고 그냥 무심결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멘토님과의 첫 만남에서 저도 모르게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일면식이 전혀 없는 멘토님께 그냥 막 쏟아낸 것 같습니다. 멘토님은 저의 이야기를 그냥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멘토님도 다는 아니지만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며 놀라워하셨고 같은 고민을 안고 계셔서 그런지 저에게 어떤 위로보다 더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중에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저를 불러 주시려고 멘토님을 보내주신 건 아닌지 하며 마음속으로 주님 주님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의 물꼬가 너무 은혜로워서 그랬을까요? CES 과정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 줄 알게 되었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집에 와서도, 생활 속에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우리 죄를 속량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니 눈물도 났습니다. CES 교재를 공부하고 또 가

서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다 보니 제 교재는 매주 말씀으로 채워졌고 멘토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점점 저의 마음은 평안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불안감을 멘토님이 보시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보는 게 어떨까 하셔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마더와이즈, 목요커브, 수요일예배에 참석하다 보니 주중엔 교회에 4번도 왔었고 금요일에 있는 순예배까지 하고 정말 가열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조금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는 날도 많아졌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산책하다가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으며, 기도가 제 삶에 들어오니 등교를 하는 아들에게 아침마다 통성으로 기도를 해주기 시작한 것이 이젠 안 해주면 아이가 기도 안 해줘? 하면서 오히려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딸에게 아직 통성으로 기도가 안 나오지만 아침을 찬송가로 깨우려고 노력 중에 있으며, 딸에게서 제발 아침에 찬송가 소리를 낮추라는 핀잔도 듣지만 아이의 뒤통수를 보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고 기도해라는 말도 해줍니다.

배우자의 고달픔도 알 것 같고 아이들의 사춘기의 힘들도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그 문을 이제야 열고 주님을 맞이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려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12주 동안 저를 이끌어 주신 멘토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멘티님의 변화를 보며 양육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은주A 성도 (우면공동체)



처음 만난 멘티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셨고 놀랍게도 제가 겪은 고난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첫날 교제 중에 멘티님이 큰 고난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멘티님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멘티님을 살려주세요. 살아갈 힘을 주세요!!!” 저는 멘티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멘티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고, “멘토님, 어떻게 하면 저도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체험한 최고의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멘티님, 멘티님의 몸을 최대한 예배의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실 겁니다. CES과정이 끝날 때쯤 본인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함께 기도하며 지켜보자고요” 이게 웬일인가요, 멘티님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여 월요일 CES, 화요일 마더와이즈, 수요일 수요일예배, 목요일 커피브

레이크, 금요일 순예배, 새벽예배, 주일예배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CES 12과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꿀 같은 말씀을 통해 저의 말과 생각이 변하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멘티님은 사춘기 자녀들과의 대화도 축복과 감사의 말들로 넘쳐나며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멘티님의 얼굴은 점점 환해지고 평안한 회복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날, “저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만, 제 마음만큼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합니다!!”라는 기쁨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의 기쁨이 이런 것일까요? CES 12주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교회와 한 홍 담임 목사님 그리고 배지현 멘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멘티님이 앞으로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가족과 친지를 전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멘토로서 든든히 가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의 핵심에 하나님을 두고 싶습니다

김준혁 성도 (N강남공동체)



“내가 왜?”
예배 중 광고에서 CES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옆에 앉은 아내가 뜨거운 눈길과 함께 팔꿈치로 저를 톡 쳤을 때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마음속에서 이미 내려온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내가 순장님과 함께, 제가 CES를 통해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도하고 있었던 것ですよ.

그런데 왜였을까요? 온라인 신청이 너무 쉬워서였을까요? 무심코 구글폼에 신청서를 넣고 기다리다 보니, 교제 구입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교재를 구입해 목차를 펼쳐 보니, 역시나였습니다. 예전부터 수도 없이 듣고, 배우고, 심지어 가르치고 글로까지 써왔던 내용을 또 배운다는 것. 혹시나 중간에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에게는 일단 말을 하지 않고 시작해 보았습니다.

멘토님은 처음 뵈었지만, 말씀은 늘 겸손하셨고 삶에서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는 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쉽고 간단하게만 보였던 CES 교재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외면하려 하며 마른 마음으로 냉대해 온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 속에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며, 그간 익숙하게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서의 새로운 배움과 익힘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 멋대로 가졌던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틈틈이 비집어 들어왔고, 출근하며 찬양을 틀고 기도하는 등 하나님과의 접점이 하나둘 늘어 가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과를 마칠 무렵, 차 안에 둔 CES 교재를 우연히 본 아내가, 뻘쭙히 밀줄치고 구절을 옮겨 적은 걸 보고는 인간적 배신감에 힐난과 취조의 시간을 벌였지만, 안 한 것보다 낫지 않냐고 뻘뻘하게 웃어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맛보았으면서도 그렇게 쉽게 뜻뜻미지근해져 왔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과정은 훨씬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자투리 시간만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다 한 것처럼 지냈는데, 이젠 하루의 핵심에 하나님을 두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중요한 시간마다 징검다리 건너가듯 이제 하나님께 건너가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환점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붙들고, 그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분명 더 깊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저는 뻘뻘하게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니까 무겁지 않게, 그러나 중심은 잃지 않게. 그렇게 오늘도 조용히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멘토님에게 전달한 말은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되었습니다

진병욱 성도 (W서초공동체)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멘티님의 간증문이~”하는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나눔 때 간증문 너무 잘 쓰지 마세요~!!라는 말을 빼놓은 것이 생각났

습니다. 말수가 적고 진중하신 성격인 것 같다는 멘티님에 대한 나의 오관?...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즉시 기도를 했는데 기쁨과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멘티님은 모태신앙의 전형적인 느낌, 그것도 어머니가 목사님, 동생도 목사님, 그런 멘티님이 왜 CES를... 그리고 감동이 안 되는 저의 믿음의 그릇으로 왜 저런 분을 섬기게 하셨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교제를 진행하는 동안 전혀 미동도 없고 대답도 단답식으로 하시는 모습이었고, 내용을 진행하는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 멍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정말 앞뒤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주님! 한참을 기도했고 제 생각을 줄이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니, 교제 시간을 통해 멘티님 뿐 아니라 저에게 위로와 변화를 주실 것이라 확신도 주셨습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 이후 기도를 모든 것보다 우선으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CES 과정 속에서 저와 멘티님을 앞에 불러 가르치실 것이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이란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멘티님과 CES 나눔은 한 주 일정 중 가장 중심이 되었고, 어떤 일보다 이 일에 집중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주님은 제 주변 모든 상황들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인도하셨으며, 그래서 기업명을 “닛시”라고 정하게 하셨습니다. CES 나눔 시간에 멘토님에게 선포하고 확신 있게 전달한 말은 실제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되었고 교제를 준비하는 시간 내내 주님의 뜻과 길만 따라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깃발을 보게 될 것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12과가 끝났지만 지금까지도 저와 영적관계로 연결시켜 주신 멘티님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실 것을 소망합니다. 제 인생 후반전 역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2025.
08

몽골 아웃리치 간증

02

1. 이현정B 집사 (N서초공동체)
2. 나정아 성도 (W서초공동체)
3. 송호용 성도 (E서초공동체)
4. 우 림 청년 (주니어청년부)
5. 최은필 장로 (N서초공동체)
6. 유창호 성도 (C강남공동체)

몽골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이현정B 집사 (N서초공동체)



2023년 처음 몽골 선교 때, 선교 현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많은 사진들 속에서 너무도 활짝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 웃음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서 저에게 주신 기쁨이고 동시에, 선교 현장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구나란 생각도 들며, 이번 2025년 몽골 선교팀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몽골 사역자 대회에서 맡게 된 저의 포지션은 CES 테이블 리더였습니다. 평신도로서 목회자분들을 멘토해야 한다는 부담과 압박감이 너무 컸습니다. 몽골 목회자분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서 힘들게 먼 길을 수고해서 오신 자리일 텐데, 저한테 배정받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 때문에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실 것이란 생각에 걱정이 태산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9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약함을 온전케 하시고, 나의 약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몽골 땅 가운데 친히 일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고, 부담감이 조금씩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다시 힘이 나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에, 새벽예배의 자리에 나가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고, 몽골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호와 사랑을 저의 땀속까지 느끼게 해 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자는 시간과 자투리 시간을 아껴서 최대한 시간을 내어 CES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동영상과 듣고, 요점정리를 하고, 적용 질문에 그동안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을 적어가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척 힘들었지만 CES 말씀영상을 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힘이 나고, 신이 나고 기쁨이 차 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자주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고,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또 한 번 제가 먼저 경험하는 귀하고 감사한 준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테이블은 목사님 한 분과 통역 포함 사모님 세 분, 그리고 평신도 리더 두 분까지 총 일곱 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며 CES를 하였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관과 생각, 가치관이 모두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은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갈급함이었음을 봅니다. 모두가 영적인 침체와 고갈 상태였고, 그럼에도 자신의 사역과 자리를 감당하고,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2박 3일간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각자에게 지금 꼭 필요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

나님의 깊은 회복의 은혜로 이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며 목회자의 길 선상에 다시 발을 딛게 하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앉고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휠체어로 오신 분, 3번의 암수술을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참석 하루 전 연락을 받고 바로 들어오신 분, 22년간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2번의 수술을 받아가며 사모의 자리를 힘들게 감당하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모두가 CES 강의와 목사님의 저녁집회 때의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와 깊은 회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 녹록지 않은 목회의 길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절망상태라고 고백한 목사님은 첫날 테이블에 앉아 저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많이 우셨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아 심한 허리 어깨 통증으로 생활이 힘들었는데, 첫째 날 한 홍 목사님의 저녁집회 말씀 후, 기도 중에 어깨가 뜨거워짐을 느꼈고, 다음날 통증은 모두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음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음을 선포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참석했던 아이들과도 그날 늦은 밤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며 관계회복의 시간을 가졌다고 간증하시는데, 목회자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 감사가 되었습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며, 남편의 사역을 위해 새벽 기도의 필요성을 두고 계속 고민했지만, 오래된 관절염으로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사모님이 계셨는데, 마지막 날까지 새벽기도로 결단하라는 목사님의

계속된 말씀은, 이제는 새벽기도를 시작해야겠다는 사모님의 결단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6명에게 이미 CES 진행 중이라며 참석하셨던 사모님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의 중요성이 더욱 깨달아지면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에 대해 확신과 기대를 더욱 갖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경험합니다. 스피치보다도 더 빠르게 말씀과 은혜를 흡수하는 몽골 사역자 멘티님들을 보며, 1분 1초의, 순간의 말씀까지도 성령님께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새겨주시고 살려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 너무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되는 것들이 너무나 큼을 보며, 그 선교의 현장에 저를 CES 멘토로 불러 주시고, 있게 하시며, 보게 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몽골에 다녀온 것이 벌써 까마득한 느낌이 들지만 아직도 테이블 한 분 한 분의 눈빛과 표정, 목소리까지도 너무도 생생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말씀의 은혜를 몽골 전역으로 퍼트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이지만,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그분들과 몽골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멘토가 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몽골에 성령의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정아 성도(W서초공동체)



작년 예배에서 한 홍 목사님의 몽골 선교 보고를 듣고 몽골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부흥의 물결에 저도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몽

골의 복음화가 북한선교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듣고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고 섬김팀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6주 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준비기도회와 사역모임을 하면서 뜨거운 예배와 기도로 영적 긴장감을 가지게 되었고 매일 9시의 몽골준비기도와 섬김팀의 릴레이 기도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쁨 부으심을 구하며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고 몽골로 초점을 맞추는 기간이었습니다. 섬김팀원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섬긴 선수(?)들이셔서 배울 점이 많았고 혼자만 어리바리한 느낌도 들었으나 팀서기로서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바쁜 회사 업무에도 건강 이상이 없이 잘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리조트로 이동하면서 넓은 평원을 보며 몽골에 왔구나 하는 감격과 뒤이어 무덤 옆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부처상을 보면서 이곳의 영적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저녁 특강에서 몽골의 복음화가 1% 남짓, 또한 이단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 설명을 듣고, 정말 이 땅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잡아주는 제자양육이 필요한 곳이며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적 교육이

절실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CES와 뉴젠파사역에 특화된 새로운교회를 상황의 맞춤형으로 몽골에 연결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의 간절한 마음의 예배와 팀원들의 거룩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수년 내에 몽골에 성령의 새 바람으로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한 달 반 넘게 준비하고 간 5일간의 아웃리치는 하나님의 군대가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 척척 계획대로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첫날 도착부터 구디백 제작과 빅게르 장식 등 준비를 하며 모든 섬김팀원이 밤늦게까지 몸을 아끼지 않았고 매일 필요한 사역을 꼼꼼히 챙기며 더 풍성하게 준비하면서도 사역 중간중간에 팀장님의 기도 인도로 일에만 빠지지 않고 힘이 채워졌습니다. 몽골 선교사역에 있어 CES팀, 중보팀, 섬김팀, 예배팀, 뉴젠파 모두 각자의 꼭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은혜롭게 사역이 마감되었고 별이 빛나는 밤 진행이 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빅게르를 포근히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몽골을 섬길 좋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깝게 느끼고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도착 후 직장의 인사발령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맨붕이 왔지만 곧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심을 믿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의 덕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겠고 몽골을 기억하며 기도리스트에 올립니다.

오벰에돔처럼 얼떨결에 성령의 단비를 맞다

송호용 성도 (E서초공동체)



저는 9년 차 순장입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영적 매너리즘이 몰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 선교보고에서 몽골 선교 영상을 보게 되었고,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서 울림이 왔습니다. “아... 저거다. 하나님이 몽골 땅에서 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예배팀에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은혜 충만한 찬양 사역을 기대했지만 첫 모임에서 들은 말은 의외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세탕’을 합니다. 몸만 만들면 돼요~” 순간, 감성보단 근육이 필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팀장님께서 꺼내신 카드는 “우리 릴레이 기도합니다.” 웃음 속에서도 영적 준비만큼은 철저한 팀이었습니다.

참여 신청을 하자마자 영적 공격이 몰려왔습니다. 첫째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어 역경의 길을 걷게 되고 아내는 위염과 장염으로 고생했으며, 저는 출발 2일 전 빗길에 미끄러져 발을 다쳤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마지막 준비 모임에서 전하신 한 홍 목사님의 말씀, “적의 저항이 심한 곳이 급소다.” 몽골은 영적 급소라는 확신이 들었고, “사탄아,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질 준비 해라!”라는 선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릴레이 기도의 힘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드디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인 테를지 글로리 리조트에 도착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예배팀은 처음부터 유쾌함과 긍정의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세

팅도 빠르고 정확하게, 몽골어로 ‘빨리’의 의미인 “호르팡! 호르팡!” 외치며 마치 수년간 함께 해 온 팀처럼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일이 너무 빨리 끝나서 “우리 진짜 일은 언제 하나요?”라는 농담까지 오갈 정도였습니다. 예배팀의 중심에는 ‘주께 쓰임 받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있었고 진정한 기쁨으로 사역하며, 모든 순간을 예배로 드렸습니다.

성령의 비가 이 메마른 몽골 땅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교회에 만연한 우상숭배를 깨뜨리는 역사하심을 보며, 전도와 동시에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강정현 사모님의 가정세미나에서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부부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집회에서 들은 한 홍 목사님의 말씀은 마치 제게 주신 말씀처럼 깊이 꽃혔고, 예수님과 그의 첫사랑이 다시 피어오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는 자들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제 영혼에 꼴을 먹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언약재를 얼떨결에 모셨던 오벰에돔처럼, 저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군대 안에 머물며 제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맞았습니다. 이제 순장과 직장의 신우회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득 충전받아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몽골 사역자 대회에 모이신 보배로운 목회자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10배, 100배로 역사하실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몽골, 더 큰 사랑

우 림 청년 (주니어청년부)



이번 몽골선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된 ‘기억의 시간’이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된 ‘소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몽골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만큼 마음속에 품은 기대와 설렘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삶과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이번 선교에서는 특별히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뉴젠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교사의 사랑이 한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 속에는, 새로운교회의 뉴젠에서 자라나 이제는 뉴젠 교사로 섬기며 받은 사랑들을 다시금 흘려보내고 있는 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간증을 마친 뒤, 교사분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연약한 고백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대에서 진행된 뉴젠 아이들과의 2박 3일 캠프에서는 작년에 만났던 아이들이 저를 기억해 주고, 먼저 달려와 안아주는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에서 빛나는 순수함과 환한 미소를 보며 “이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이 땅에 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고, 다시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덕분에 작년보다 더 깊

고 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준비한 “만세 반석” 찬양 특순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70여 명 아이들의 입술에서 또렷하게 들려오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이라는 한국어 가사는 단순한 가사 그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시며, 이곳 몽골 땅에도 임재하고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음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다르지만, 같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너무도 벅차고 감사했습니다.

선교 일정의 마지막 즈음에는 갑작스럽게 급성 위장염이라는 신체적인 난관과 함께, 영적으로도 꽤 큰 공격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한 선교팀원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의 헌신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공동체의 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선교팀원분들 덕분에 끝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은 늘 저에게 ‘은혜의 땅’입니다. 제가 도우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땅과 사람들을 통해 제가 더 많이 받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 몽골 땅을 환히 밝히는 빛이 되기를,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새로운교회 몽골선교팀

최윤필 장로 (N서초공동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현장을 경험해 보라는 한 홍 목사님의 권유로 몽골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보기도팀 담당 장로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중

보기도팀은 조금 저에게는 어색한 팀이었지만 목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 기간 중에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행기에 내려다본 몽골 땅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첫날 중보기도팀실에 모였을 때 팀장님은 어벤저스 모습이 담겨 있는 옷을 입고 이번 중보기도팀은 어벤저스팀입니다. 하나 되어 선교 미션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빅게르 주위를 돌며 준비 기도를 할 때 몽골 땅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무지에서 오는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CES 첫날 현장에서 중보기도 중 영적 놀림이 있었고 중보기도실에서 피드백 시간에 나눔을 하였는데 견고한 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서 선교는 못하지만 순교자의 심정으로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목상에 견고한 진과 영적 놀림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교회가 군대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깃발은 CES 테이블 리더가 보병으

로서 꽃을 짓이고 예배 전 길을 만들고 준비하는 예배팀은 공병,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승리의 노래와 사기를 올려주는 찬양팀은 군악대, 전쟁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지원하는 섬김팀은 보급부대, 중보기도팀은 용단폭격기,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는 적의 눈에는 띄지 않지만 정확하게 적들을 조준 사격하는 스나이퍼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교회의 군대가 이곳에 주둔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저녁집회 기도모임 시간에 이곳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어린양의 보혈의 피로 덮고 이 공간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져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그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 같이 부어졌습니다. 많은 기적과 은혜가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사건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수요일 저녁집회가 끝나고 중보기도 팀별 모임에서 견고한 진인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승리한 선교팀에 영적인 경호원이 되어 침묵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 하나님의 군대, 새로운교회 몽골선교팀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역 가운데 중보기도 대상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몽골선교를 통하여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기도에 힘과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해 주신 몽골 아이들과의 만남

유창호 성도 (C강남공동체)



“나중에 퇴직하면 해외 선교하면서 살자”라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난 안가!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갈려면 혼자 가!” 우리 부부는 이 큰 대화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배 광고 시간에 해외선교 갔다 왔다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저는 부러워해야만 했습니다. 마음은 참여하고 싶었지만 항상 분주한 직장 생활로 1주일간 연가를 내고 가기가 어려웠고, 특히 직장 특성상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 몇 개월 전에 가겠다고 약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내도 부부나 가족이 같이 가면 모를까 특별히 혼자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작년 LTS로 몽골선교를 다녀오게 됐고 그녀는 다녀와서는 밤새 받은 은혜를 얘기해 줬습니다. 날씨가 음식은 별로였으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선교가고 싶었던 저는 못 가고, 갈 생각이 별로 없었던 그녀가 먼저 갔을까? 치.

그러다가 재밌는 일이 발생. 올해 4월 말경 아내한테 올해 몽골에 또 가자고 전화가 왔는데 마침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서 엿들으면서 또다시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글썽 남편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간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쿨하게 “오케이~”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근데 기도도 안해보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인가? “근

데 언제래?” 물었더니 “6월 말이라는데?” 전 직장에서 지난 12.3 계엄과 관련되어 조사를 받고 중앙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부분들이 소명되고 정상 복직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신다면 정상 복직되어 6월 3일 대선 이후 새 장관이 임명되고 6월 말쯤이면 엄청 바쁠 때이어야 했습니다. 선교를 갈 수 있을까?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직장 문제는 그때까지 해결 안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교라고 생각되니깐 징계니 뭐니 별로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일정을 정리해 주시니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선교팀 중 뉴젠의 선생님이로 배치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아마도 뉴젠 중등부를 섬기고 있어서 그렇게 배치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2박 3일 동안 8~9명의 목회자 자녀들과 함께 일정을 같이하면서 각종 소그룹 활동을 하게 되고 각 조에 통역도 배치되어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수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해서 보니, 말게 된 아이들의 부모가 목회자가 아니어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고 통역사도 나이가 여러 제가 하는 말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기대한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고 아이들과의 교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첫날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전체 예배에서 다니엘에 관해 설교를 하셨고 저는 이

어지는 소그룹에서 아이들에게 다니엘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물어보니 성경인물로서 다니엘을 처음 들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맙소사! 뿐만 아니라 15세~16세 되는 아이들이라 시크한 새로운교회 중등부 친구들과 매우 유사하게 찬양 울동에 참여하지도 않고 찬양을 따라 부르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시간에는 옆에 있는 아이와 얘기를 하든지 눈만 뭉뚱뚱 뜨고 있었습니다. 중2병은 국제적으로 일관된 전염병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부터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선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고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뭘 전도해야 할까? 그렇게 기대했던 선교, 남들은 다 은혜받았다고 자랑하는 선교, 나의 첫 선교는 실패인가?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아,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첫날 저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일정을 정리해 주신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 만나라고 네 일정을 내가 다 정리해주지 않았느냐?! 이 아이들도 나름 다 일정이 있었는데 다 정리하고 너를 만나러 온 것이다. 너희들의 만남은 내가 계획한 것이니 기뻐해라!” 한국에서 제 일정을 정리해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겠는가?

두 번째 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해 주신 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긴장을 풀고 일정을 더 열심히 소화

하려고 하기보다는 소중한 시간을 오히려 아이들의 눈빛에 집중하면서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면 아무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너를 안아주라고 했어. I love you (bi chamd khairtai) and Jesus loves you (Yesus tand khairtai)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FunFun Bible 시간에 조 선생님들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소리 내 기도해 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실눈을 떠보니 아이들은 같이 기도하고 있었고 몇 명은 눈물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세수식 때 손을 씻어주고 십자가를 달아줄 때 이 아이들 표정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으로 조금했던 저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언어로 전달하고자 했던 저의 생각, 모두 첫날 저를 힘들게 했던 인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만남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의존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뉴젠 중등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중2병 아이들을 말보다 행동으로 대해줘야겠다! 기대하라, 중등부 친구들! 추신: 이번 몽골선교에 다녀오면서 강하게 느낀 것은 땅덩어리는 크지만 인구가 부산시 정도밖에 안되는데 복음화가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몽골은 우리 교회에서 접수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
08

수요 커피브레이크 간증

03

1. 이수진A 성도 (E서초공동체)
2. 김연희 성도 (S서초공동체)



고귀한 말씀이 저의 삶에 피와 살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수진A 성도 (E서초공동체)



태초에 말씀이 계시
니라 이 말씀이 하
나님과 함께 계셨으
니 이 말씀은 곧 하
나님이시니라 (요한
복음 1:1)

밥도 20-30번 씹어
먹으면 장수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밥처럼
꼭꼭 씹어 그 안에 숨겨진 말씀의 진리를
하나하나 깨닫고 묵상하는 것이 커피브레
이크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대한 호기심, 뭔가 더 알
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
수록 말씀의 깊이는 사실 가늠하기도 감
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권의 책, 성경에는 창조의 원리
와 인간의 존재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위
대한 구원계획과 완성의 모든 story가 담
겨있는,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 말씀이라
고 생각합니다. 제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 Master
Key라고 할까요.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된 부분은 천국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 사람들을 어
떻게 대하셨는지...

익숙한 말씀이라고 대충 보는 것이 아니
라 주님을 알고 싶은 목마름과 갈망을 가
지고 기도하며 겸손히 말씀을 대하면 마
치 암호가 술술 풀리듯, 아무것도 아닌 흰
종이에 촛불을 가져다 대면 글자가 나타
나듯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으로 제 삶에 적용되는 순간순간마다 저
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눈물을 쏟
게 됩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도 고귀한 말씀이 값없이 주어진 것에 감
사하며 커피브레이크 묵상을 통해 그것이
저의 삶에 피와 살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고 성령님께서 활발
히 운행하시는데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
으로 살아감에 있어 이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도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
에 앉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러온 음성으
로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따뜻함이 느껴집
니다.

“주님, 저는 무지하고 비천하오니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
서.”

예수님은 매 순간 저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김연희 성도 (S서초공동체)



천주교 신자였던 저
는 작년 7월 하나님
과 인격적으로 만나
게 되었습니다. 폭풍
의 소용돌이 속에 있
던 저를 인도하시고
11월 새로운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올해 첫 신년 특새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
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 했고 ‘커피브레이크
수요반 모집광고’를 보았습니다. 귀납법적 성
경공부라는 부제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
람들의 모임 같아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저
의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획일
화된 교육환경에서 자란 저에게는 성경을 읽
고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
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브레이크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말
씀을 읽고 나의 생각,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
기할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편해졌고 저희
조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님과 부인도자님
의 차분한 진행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
니다.

커피브레이크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틀린 것이 아닌 다름이 인정되고,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조원들
을 통해 알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의견을 나누다 보
면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폭이 넓어
지면서 지혜로 채워져 감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동안은 잘 차려

진 진수성찬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커브는 음식 하나하나를 꼭꼭 씹으면서 재
료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깊이 음미할 수 있
는 시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
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
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마귀 들린 사람이었고, 중풍병자였으
며 나병을 앓는 사람이었음을 깨달았습니
다.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저를 부르시어 병
든 영혼을 고쳐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
어 주신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닌 매 순간 저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 년 일독을 목표로 성경통독을 하는데 커
브를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읽기 시작하니
전과는 다르게 말씀 중에서 핵심 말씀구절
과 단어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다
가왔습니다. 매일 제게 주시는 말씀을 적고
묵상내용을 요약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
들과 일상의 감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속
제처럼 읽었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콕콕 짚어가며 알려주시는 것
같아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뜨거웠던
커브모임 6주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아쉽
지만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귀한 시간을 허
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
다.

2025.
08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 소개:

홀사모선교회

04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소개

홀사모선교회를 소개합니다!

홀로 된 사모님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는 홀사모선교회

홀사모선교회(대표 이예스터 목사)는 남편 목회자를 먼저 떠나보낸 홀사모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대표인 이예스터 목사님도 홀사모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30년 전 이 선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이예스터 목사(요나 3일 영성원 원장)님은 40년 전 남편 목사님과 사별 후, 홀사모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평생 홀사모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홀사모 가정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남편 목회자가 있어도 어렵던 생활이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을 당하면서 더 어려워지고 고통받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예스터 목사님은 1994년 일본 후쿠오카교회 선교목사 시절, 담임목사였던 이성주 목사님 내외와 함께 기도하던 중에 홀아비, 홀어미의 앞 글자를 따 홀사모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었고 1994년 6월 홀사모수양관 개관 예배를 드리면서 출범한 홀사모선교회는 연말이면 각 교회에 홀사모 후원요청 서신을 꾸준히 보냈고 그 결과, 이제 각 교단에서도 홀사모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다.

홀사모선교회 주요 사역은 후원요청 편지 보내기, 1004 기도운동, 생계보조 및 자녀장학금 지원, 장기임대 주택보증금 지원, 긴급 수술비 지원, 노숙인 전도 집회, 지방 홀사모 자녀 공부를 돕기 위한 수도권 12 학사관 건립 등이 있습니다.

홀사모선교회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홀사모선교회는 매년 어려운 가정을 선발해 생계보조금과 자녀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절절한 형편을 언론 방송을 통해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예스터 목사님은 매일 집회와 기도로 상담해 주는 터전을 주시면 홀사모 후원에 더 큰 자원이 될 수 있겠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요나 3일 영성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영성원은 고통받는 자들의 응급센터인 '통곡의 벽'과 '도심 속 예수원'이 되어 매일 집회를 인도하며 비상기도로 응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홀사모선교회는 '홀사모의 자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목사님은 목회자 남편이 소천하면 홀사모도 사역지를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갈 곳이 없고, 가서 정착할 만한 재정도 없으며 특히 최근 집값 상승으로 임대료가 크게 올라 거리에 나앉아야 할 상황 속에 이들을 돕는 곳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집 걱정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이 필요한 공공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지원하고 계속해서 섬김의 노력과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홀사모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작은 지원금이 있지만 목회자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 가고 학업에 집중하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홀사모 자녀들을 위한 학사관 12관을 만들고자 하는 다부진 각오로 1004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하고 일하는 홀사모 자녀들을 돕고 그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터전이 되는 학사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04 기도'를 진행합니다. 1004명의 기도후원자를 구성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1004일 동안 매일 천 원의 헌금을 하면서 후원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홀사모선교회에서는 사모님들과 사역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적극적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역으로 '서울역 전도 집회'를 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며 도시락 섬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거룩한 결단과 헌신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홀사모선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섬김을 통해 홀로 된 사모님들과 목회자 자녀들이 영육간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는 은혜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 받길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돕는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홀사모선교회를 위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홀사모선교회를 위한 기도

1. 홀로 남겨진 사모님들과 자녀들이 정서적, 영적,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홀사모선교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위로와 격려, 사명을 계속 해서 붙들 수 있도록.
2. 홀사모선교회가 30주년을 섬기며 매년 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모님들을 위한 생활비 보조, 주택보증금 지원, 긴급 수술 및 치료비 지원, 장학금 지원, 수도권 학사권 건립 등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과 긴밀한 동역 교회와 단체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3. 홀사모들을 섬기는 이예스더 목사님과 장덕봉 목사님(새행로교회)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교회가 주변과의 법적인 문제(주변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잘 해결되고 사역에 집중하며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뉴젼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일정

☆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 12:3) ☆

영아부 반짝반짝 하나님의 아이들 7/5(토), S하우스	아동부 다니엘 임팩트 8/1(금)-3(주일), S하우스
유아부 반짝반짝 하나님의 아이들 7/12(토), S하우스	유년부 다니엘 임팩트 8/1(금)-3(주일), 너리굴 수련원(안성)
유치부 반짝반짝 하나님의 아이들 7/26(토), S하우스	초등부 다니엘 임팩트 8/1(금)-3(주일), 가평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중등부 Starstand: Unshakable&Radiant 7/25(금)-27(주일), 청포대 썬셋(태안)	KIDS Shining Star 8/8(금)-9(토), 영아부실
고등부 일어나라, 믿음의 세대여 (Arise, the Faith Generation) 8/8(금)-10(주일), 청포대 썬셋(태안)	JUNIOR Daniel Impact 8/15(금)-17(주일), 포레스트 펜션(양평)
YEM Daniel Impact 7/18(금)-20(주일), 한옥예향(홍천)	

Wednesday Prayer Worship

✝

8월 수요기도예배 예배

8/6 김도형 목사	8/13 이아론 목사
8/20 이상화 목사	8/27 이성훈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뒀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